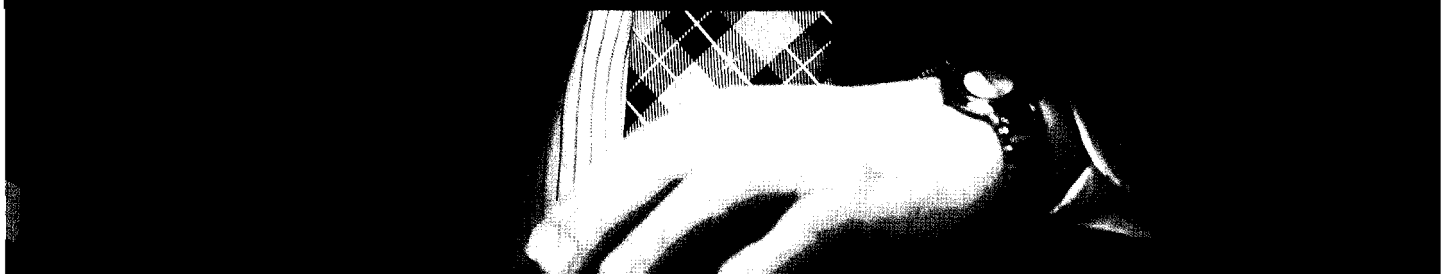
STANDARDS BUILDER 오일근 한국인정원 원장

정리 **윤정호** 기자 + 사진 **김성문** 기자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오일근 한국인정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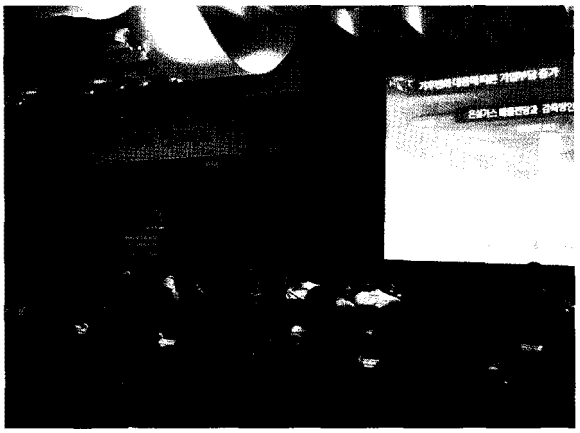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9001/14001)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민간 운영방침에 따라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인정원(KAB: Korea Accreditation Board)은 현재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에 가입했다. 한국인정원은 인정프로그램에 의한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인정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 오일근 한국인정원 원장과의 지상인터뷰를 통해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활발한데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ISO 인증체제를 포함하여, 모든 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선행 학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이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세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측에 유리한 규범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려 할 때, 국제흐름에 맞춰 우리측 안이 채택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여건을 사전에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국제적 활동을 업무의 중심에 두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즉, 모든 발상과 행동의 중심을 세계에 두고 실천해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국제활동의 활성화와 국제기구에의 적극참여 및 자원봉사적 노력은, 장차 이 분야에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인증분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요소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정원은 각국 인정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증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 각국 인정기구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인정기구는 영국의 UKAS, 독일의 DAkkS, 미국의 ANAB 등 8개 국가 인정기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인 2010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국 인정기구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평균 1달에 1개국씩 MoA를 연쇄적으로 체결한 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선진 각국 인정기구들은 지난 10여 년간 각종 이유를 들어 한국인정원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조차 거부해오던 터여서, 한국인정원의 국제활동 의지와 소통의 노력이 비로소 선진 각국으로부터 정상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이들 MoA체결만을 위한 단독목적의 해외출장은 단



▲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기업 선명회 상면

한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비결은, MoA체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협상과 의사교환을 주로 전화와 e-mail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후,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고 성사시킨 데에 있는데, 이 점은 통상적 관례와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 태지역인정협력기구의 정보화위원회(CMC)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활동사항과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2010년 6월, 아 · 태지역인정협력기구(PAC) 총회에서 제가 정보화위원회(CMC: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Committee)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현재 동 위원회의 운영전략과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IAF와 유럽 · 미주지역기구 CMC 의장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MC 의장으로서 PAC 집행위원회 참석, PAC Newsletter 발간, PAC CMC 총회 주재, CMC sub-committee 구성 등을 마치고, APLAC · IAAC · PAC 공동 Newsletter 발간 준비 등 과거의 CMC 활동과는 달리 개척적인 자세로 새로운 일을 찾아 몸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국제활동을 통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인증 주도 9개국(G9) 워크숍 장면.

최근 ISO 인증의 신뢰성이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 4월 3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인정원 주도로 ISO 인증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국제인정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합의문(Communique)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속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IAF의 Dougherty 의장은 당시 이 회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 "unprecedented(사상 유례 없는), well-orchestrated(잘 기획 · 실행되었으며), very persuasive(매우 설득력 있는)" 이라는 세 마디 단어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듯이 이 회의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인정기구의 메이저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9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인정기구 정상회의(Summit Meeting)'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이슈가 된 만한 행사였으며, "세계 인정 · 인증산업의 역사적 사건"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ISO 인증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정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든독한 후원 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인증의 신고접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부실인증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금년 5월 1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외적으로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정원은 국내 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국내 인증기관을 최초로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몽골 및 카자흐스탄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실무자를 교육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국인정원의 인정시스템과 품질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격의 향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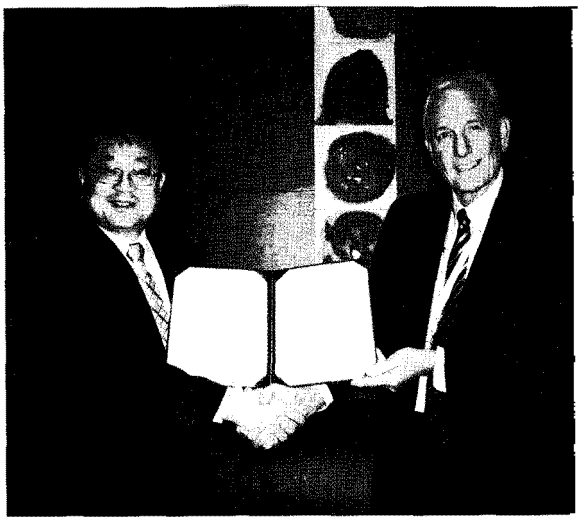
함께 우리나라 인증산업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로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인정원 원장으로서의 경영철학과 역점 추진 사업, 그리고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

한국인정원장으로서 제 경영철학은 "인간과 인증은 정직이 기본이다"입니다. 이는 인증산업의 선진화는 한 국가가 선진국답게 갖추어야할 필수적 모습이 성숙되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600년 노력을 향후 30년으로 압축시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과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교육과 언계에 우리사회와 국민전체 속에 '정직과 신뢰'가 인간소양의 기본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범국민 계몽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처럼 땀을 흘리거나 위험한 형태가 아닌, 두뇌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서비스산업형 일자리를 기다린 채, 아무리 실업률이 높더라도 취업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산업 분야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미래 선진국형 지식산업입니다. 물론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실물산업과는 다른 정신적 · 문화적 토대가 구축된 사회와 국민성의 형성이 선결조건입니다.

처음 제가 인정 · 인증계에 합류하면서, 이 분야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며 국격향상의 근본이 된다고 주장하자, 많은 종사자들이 의아해 하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10대가 되었던 세대, 즉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시양세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를 '新한류'로 승화시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근래 각종 세계무대에서 거두고 있는 실적은 기성세대로서는 남득이 어려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출생 · 성장환경 속에 대단히 우수한



▲ 영국인정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DNA와 의식구조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세대의 DNA 개조 성과는 물론 기성세대의 희생과 노력의 몫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부활의 중요한 역할을 한 기성세대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증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새롭게 탄생된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의 DNA적 발상과 행동이 세계의 표준적 규범으로 재탄생될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저는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질서로부터의 질서(Order out of Disorder)》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만물이 혼돈스럽기만 해 보여도, 그 혼돈(Chaos)에는 논리적인 질서가 존재하며,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다양한 변수(parameter)로 이를 적절히 모델링 한다면 그 혼돈현상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사회에도 과거의 질서 있는 체제와 논리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혼돈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고의 접근법을 택한다면 그러한 혼란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